

전남 학교체육 육성에 '청신호'

대한체육회·전남도체육회 장학금 지급 농어촌 유망선수 등 150여명 혜택 받아

전남도 학생선수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체육장학생 및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과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이 조만간 지급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대한체육회는 최근 전남에 체육장학생 20(초등부 5, 중등부 7, 고등부 8명,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생 71(초등부 12, 중등부 24, 고등부 35)명 등 총 91명의 장학생 선발 명단을 통보해왔다.

이들에게 지급될 장학금은 체육장학생의 경우 1인당 초등부가 30만원, 중등부가 50만원, 고등부가 100만원이며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생은 초·중·고 동일 1인당 100만원씩이다. 체육장학생 장학금은 총액 1천300만원이며 농어

촌 유망선수 장학생 장학금은 7천 100만원으로 합계 8천400만원.

이같은 전남의 장학생수는 전국에서 충북(234명), 강원(177명), 경기(137명)에 이어 4번째 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남의 학생 발굴 및 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 장학생 확정이다.

전남도체육회는 2014년도 '전남도체육회 장학생' 65(초등 26, 중등 19, 고등 15, 대학 5)명에게 장학금 3천280만원을 최종 확정지었다.

2014년도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의 대표적 수상자는 지난해 94회 전국체전에서 승마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권만준(금성고 2년), 2관왕인 역도종목 이인우(완

도수산고 3년) 등이다.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은 경기력이 뛰어나고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선수(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학사업 실시를 통해 경기력 향상 및 체육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 2013년말 기준 14억286만원이 모금됐다.

특히 지난 3년동안 227명에 1억 1천200(초등 30, 중등 50, 고등 70, 대학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같은 학생부 육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전남은 전국소년체전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종합4위를 연속해서 차지한 바 있다.

따라서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이 우수선수 발굴에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절감한 전남도체육회는 조성 목표액을 당초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 확대 조성키로 하고 도민, 유관기관, 출향 향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율모금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박내영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전남의 체육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하게 돼 더없이 기쁘다"며 "비록 개인적으로는 적은 규모일지 모르지만, 전남 체육의 밝은 미래를 위한 더없이 중요하고, 가치있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도 장학금은 오는 2월 전남도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신광호 기자 sgh@namdnews.com

전남 학교체육 활성화 청신호

올해 대한체육회 장학금 8400만원 확보 인재육성 장학기금 3280만원 추가 지원

전남지역 학생 선수 육성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대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가 각각 농어촌 유망 선수와 체육장학생에게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4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전남에 체육장학생 20명(초등부 5명, 중등부 7명, 고등부 8명)과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생 71명(초등부 12명, 중등부 24명, 고등부 35명) 등 총 91명의 장학생 대상자를 선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에게 지급될 장학금은 체육장학생의 경우 1인당 초등부 30만원, 중등부 50만원, 고등부 100만원이며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생은 초·중·고 모두 1인당 100만원씩이다.

모두 합하면 체육장학생 장학금은 1300만원에 이르며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생 장학금도 7100만원으로 총 8400만원에 이른다.

대한체육회가 배정한 전남의 체육장학생 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234명), 강원(177명), 경기(137명)에 이어 네 번째로 전남의 학생 발굴 및 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대한체육회가 장학생 수 배정에 있어 △등록 학생선수 비율 △소년체전·전국체육대회 참가 비율 △농·어촌 소재 학교 운동부 수 ·농·어촌 거주 학생선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차등 배정한 것으로 전남이 농어촌 고령화와 학생수 급감 등의 난제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운동선수 육성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또 전남의 선수육성 기반 구축 노력과 더불어 대한체육회의 장학금 지급은 선수육성의 도화선 역할과 함께 난제 극복의 청량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남도체육회도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을 통해 2014년 전남도체육회 장학생 65명(초 26, 중 19, 고 15, 대 5)을



선발하고 32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수상자는 94체전에서 승마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권만준(금성고 2년), 94체전 2관왕인 역도종목 이인우(완도수산고 3년) 등이다.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은 경기력이 뛰어나고,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 선수와 차상위계층 선수에 대한 장학사업을 통해 경기력 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14억여원을 적립했다.

이를 통해 지난 3년동안 모두 227명에 1억1200만원(초등부 30만원, 중등부 50만원, 고등부 70만원, 대학부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이처럼 학생부 육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전남은 전국소년체전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종합 4위를 지켰다.

김경석 기자 pius97@

대한체육회 체육장학생 전남 91명 선정

올 한해 체육분야 각 종목별 우수성적을 거둔 전남도 선수들 91명이 체육장학생으로 선정됐다.

14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시도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로부터 우수선수를 추천 받아 이번 초·중·고 체육장학생을 선정한 결과 전남에서는 체육장학생 20명(초 5명, 중 7명, 고 8명)과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생 71명(초 12명, 중 24명, 고 35명) 등 총 91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전남의 장학생수는 전국에서 충북(234명), 강원(177명), 경기(137명)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것으로 전남의 학생 발굴 및 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남도체육회는 기대하고 있다.

체육장학생에게는 초등부 30만원, 중등부 50만원, 고등부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생은 초·중·고가 동일하게 100만원씩 받게 된다.

이번 체육장학생 선정기준은 초·중·고 학생선수로서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3위

이내(3위 포함) 입상자 △제94회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3위 포함) 입상자 △2013년도 종목별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3위 포함) 입상자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파견 2013년도 국제규모대회 5위 이내(참가국 5개국 이상, 5위 포함) 입상자이다.

또 농어촌 유망선수 선정기준은 농어촌 지역 거주 혹은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운동부 소속 초·중·고 학생선수로서 △2013년도 종목별 전국규모대회(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포함, 단, 지역결선은 포함되지 않음) 참가 경력이 있는 자 △2013년도 국제규모대회(참가국 5개국 이상) 참가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다.

한편 전남도체육회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승마의 권만준(금성고 2년)과 체전 2관왕인 역도의 이인우(완도수산고 3년) 등 올해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 장학생 65명(초 26, 중 19, 고 15, 대학생 5명)을 확정했다.

최동환 기자 dhchoi@jinilbo.com

남도일보

광주·전남체육회 “청마처럼 도약하겠다”

市, 시민 행복과 건강 창조의 역할 수행 道, 전국체전서 무너진 자존심 회복할 것

광주광역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가 청마의 해인 2014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김홍식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갑오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하는 Sports Loving City 광주 구현’을 비전으로 시민 행복과 건강 창조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2개 역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내영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전국체육대회가 단순한 체육 잔치가 아닌, 시·도민의 역량과 자존심을 담아내고 있음을 절감했다. 따라서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무너진 전남의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

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엘리트체육 육성에 있어 경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득점 단체종목을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우수 선수 및 창단 팀 관리를 위해 종목별 담당직원, 해당 경기단체, 해당 팀 감독과의 소통시스템 등 현장중심 행정을 강화해 전국체전 성적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림픽 스포츠스타 재능기부 사업 등 시민친화사업을 더욱 확대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유치, 타시도 팀 전지훈련 유치 등 적

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홍식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2015광주하계U대회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발된 유니스타를 광주 지역 대학 및 대학원에 진학시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7월 광주시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 스포츠교류대회를 포함해 육상 등 9개 종목에서 국내·외 대회를 프레대회로 개최, 2015광주하계U대회가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전국체육대회 성적이 매년 하락해 전남체육인의 떨어진 사기를 원상복귀 시키

는데 주력할 것을 큰 목표로 내걸었다.

타 시·도에 비해 낙후하지 못한 재정으로 우수 선수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도체육회는 계속된 부진은 동·하계전지훈련팀 유지, 전국규모대회 다수 개최 등 도정의 주요사업인 스포츠마케팅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체육회는 올해 열릴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을 꺼내들었다.

먼저 전남도체육회는 전남도교육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등부를 비롯한 학생부의 전력 강화, 우수선수 배출 등 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전남도체육회는 박내영 사무처장 주도로 전국체전 이후 전남 전문체육 발전 방향 정립을 위한 교훈과 반성, 향후 중점 추진 계획, 종목별 종합분석 등 200페이지에 가까운 결과보고서를 만들어냈다.

박내영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오나라와 월나라 간의 싸움에서 비롯된 고사로 패전의 굴욕을 되새기고자 어떤 고난도 감수하는 정신을 일컫는다”며 “상황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95체전을 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신광호 기자 sgh@namdonews.com

전남매일

전남, 학생 체육 육성 청신호

체육장학생 ·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혜택

대한체육회에서 체육장학생과 농어촌 유망선수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 전남지역 학생체육육성에 청신호가 커졌다.

14일 대한체육회 및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전남에 체육장학생 20명(초등5·중등7·고등8),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생 71명(초등12·중등24·고등35) 등 총 91명의 장학생 선발 명단을 통보했다.

이들에게 지급될 장학금은 체육장학생의 경우 1인당 초등부가 30만원, 중등부가 50만원, 고등부가 100만원이며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생은 초·중·고 동일 1인당 100만원이다.

이같은 전남의 체육 장학생수는 전국에서 충북(234), 강원(177), 경기(137)에 이어 4번째다. 따라서 장학금 혜택으로 전남 체육 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의 장학제도도 확정됐다.

도 체육회는 올해 ‘전남도체육회 장학생’ 65명(초26·중19·고15·대학5명)을 선발해 장학금 3,2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 수상자는 94체전에서 승마종목 금메

달을 획득한 권만준(금성고 2년), 94체전 2관왕인 역도종목 이인우(완도수산고 3년) 등이다.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은 경기력이 뛰어나고, 잠재가 촉망되는 우수선수(차상위 계층)에 지급된다.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은 경기력 향상 및 체육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 2013년말 기준 14억286만원이 모금됐다.

지난 3년동안 227명의 학생에게 1억1,200만원(초등30만원·중등50만원·고등70만원·대학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같은 학생부 육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전남은 전국소년체전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종합4위를 연속해서 차지한 바 있다.

박내영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전남의 체육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하게 돼 더없이 기쁘다”며 “비록 개인적으로는 적은 규모일지 모르지만, 전남체육의 밝은 미래를 위한 더없이 중요하고, 가치있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기자

절친과 라이벌 사이, 영그는 '포스트 연아'



한겨울의 우생순

⑤ 17세 동갑내기 피겨스타 박소연 & 김해진

“(김) 연아 언니와 함께라서 신나요.”

쇠뿔만 굴러가도 웃는다는 17세 동갑내기 피겨스타 김해진(과천고)와 박소연(신목고). 올겨울, 둘은 평생 잊지 못할 뜻깊은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우상으로 삼아온 ‘피겨여왕’ 김연아(24)와 함께 올림픽에 도전하는 것이다.

지난 5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피겨종합선수권대회를 마친 뒤 둘은 “연아 언니와 함께 올림픽에 나가서 무척 영광이다.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연아에 이어 박소연이 2위, 김해진이 3위를 차지한 자리였다. 김연아는 후배들에게 “올림픽에 나가는 것으로도 큰 경험이 된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올림픽에서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훈훈한 조언을 전했다.

반짝반짝 두 눈을 빛내며 우상의 얘기를 귀담아 들던 김해진과 박소연.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는 김연아 못지않게 이들의 힘찬 도전기도 주목을 끌고 있다.

■ 라이벌? 든든한 벗!

일본 피겨스타 아사다 마오(24) 예전 항상 ‘김연아 라이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국내에선 김해진과 박소연이 그런 관계로 통한다. 같은 1997년생인 둘은 비슷한 시기에 피겨를 시작했고 국내 주니어 무대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왕좌를 나눠가졌다.

하지만 둘은 라이벌이기에 이전에 더할 나위없는 ‘절친’이다. 얼음 위에선 ‘포스트 김연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만 빙상장 밖에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함께 간식도 사먹으러 다니는 사이다. ‘도레’인 데다 피겨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 학교 친구보다 대화가 더 잘 통하는 든든한 벗이다.

박소연 “피겨는 단체가 아니라 개인 종목이라서 훈련할 때 많이 외롭다. (김)해진이는 그런 나에게 늘 좋은 친구”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 선의의 경쟁자

김해진과 박소연의 올림픽 출전은 김연아 덕분에 가능했다. 김연아가 지난해 3월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하면서 우승 선수 국가에 올림픽 출전권 3장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김해진은 “연아 언니에게 무척 감사하다. 언니의 연기를 열심히 본받겠다”고 했다. 박소연도 “꿈에 그리던 올림픽 무대다. 큰 대회에서 언니의 몸 동작과 표정을 많이 배우고 오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이번에는 함께 올림픽에 나가지만 어릴 땐 김해진이 먼저 주목받았다. 김해진은 2012년 9월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주니어 그랑프리 5차대회에서 2005년 김연아 이후 7년

만에 대회 정상에 섰다. 트리플 5개 점프(리츠·플립·롤·살코·토폴)를 초등학교 때 모두 구사했고, 스핀도 뛰어났다. 김연아 이후 ‘신동’ 소리를 듣는 건 당연했다.

박소연은 뒤늦게 발전 속도를 냈다.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박소연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06년에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위해 훈련지를 서울로 옮겼다. 강일중학교 입학과 함께 국가 대표가 됐고 2013년 9월 주니어 그랑프리 4차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점프는 김연아와 견줄 만큼 비거리와 높이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 평창올림픽이 더 기대되는 셋

“제2의 김연아”를 꿈꾸는 둘의 소치올림픽 목표는 ‘첫 톱’과다. 쇼트프로그래밍 24위 안에 들어가 프리스케이팅까지 뛰어보는 것이다. 현재 국제빙

소치 목표 24위 내 진입 킷통과 기량 상승세 깜짝 이번 기대도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일 것”

상연맹(ISU) 세계랭킹은 김해진이 54위, 박소연이 68위다. 객관적 수치로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지만 최근 상승세와 컨디션이라면 깜짝 이번도 기대할 수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박소연은 과감한 점프와 스핀이 돋보인다. 김해진은 프로그램 소화 능력과 표현력이 뛰어나다. 깔끔한 점프도 인상적이다”라며 “국내 피겨선수권대회에서 김연아에 이어 나란히 2·3위를 차지한 자신감이 소치올림픽에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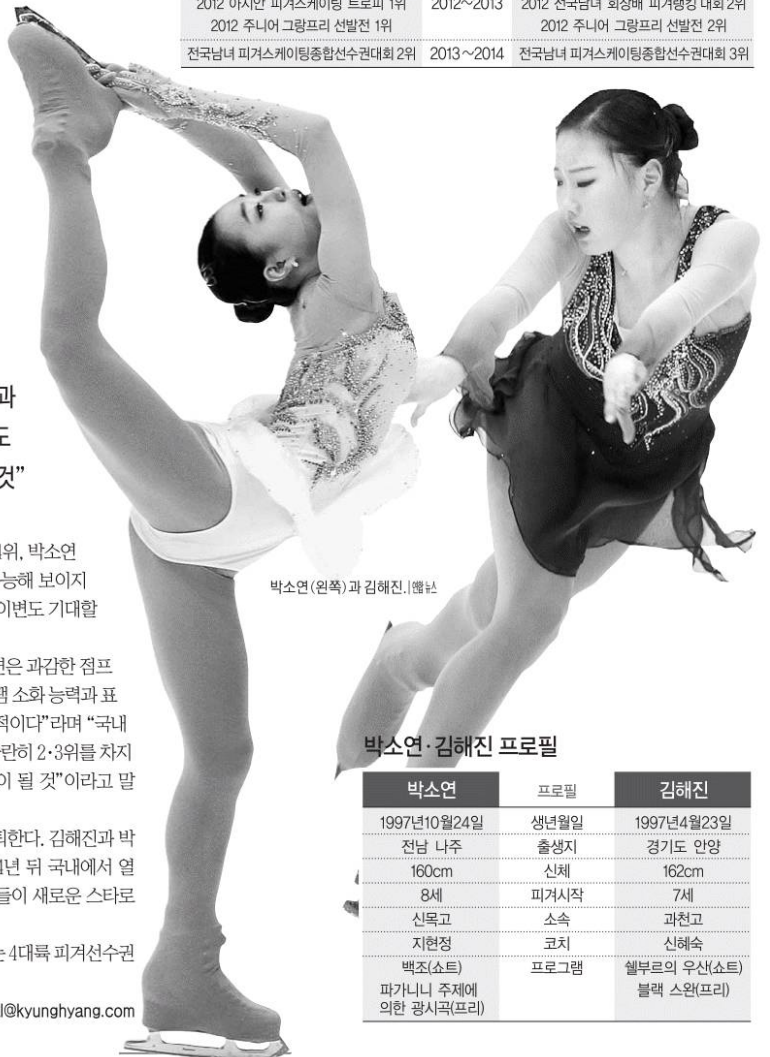
김연아는 이번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한다. 김해진과 박소연이 소치에서 한층 성숙해진다면 4년 뒤 국내에서 열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이들이 새로운 스타로 주목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둘은 2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4대륙 피겨선수권 대회에 참가해 마지막 담금질을 한다.

이진영 기자 asal@kyunghyang.com

박소연·김해진 주요 성적

박소연	시즌	김해진
2008 전국남녀 회장배 피겨랭킹 대회 1위	2008~2009	2008 전국남녀 회장배 피겨랭킹 대회 2위
제52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 1위	2009~2010	제64회 전국남녀 피겨종합선수권 1위
2009 전국남녀 회장배 피겨랭킹 대회 1위		2009 전국남녀 회장배 피겨랭킹 대회 2위
제92회 전국 동계 체육대회 2위	2010~2011	제92회 전국 동계 체육대회 1위
2011 ICG캘로나 동계 국제청소년대회 2위		2010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 1위
제66회 전국남녀 피겨종합선수권 2위	2011~2012	제66회 전국남녀 피겨종합선수권 1위
2011 아시안 피겨스케이팅 트로피 2위		2011 아시안 피겨스케이팅 트로피 1위
2012 아시안 피겨스케이팅 트로피 1위	2012~2013	2012 전국남녀 회장배 피겨랭킹 대회 2위
2012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 1위		2012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 2위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종합선수권대회 2위	2013~201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종합선수권대회 3위



박소연(왼쪽)과 김해진. [홍진]

박소연·김해진 프로필

박소연	프로필	김해진
1997년 10월 24일	생년월일	1997년 4월 23일
전남 나주	출생지	경기도 안양
160cm	신체	162cm
8세	피겨시작	7세
신목고	소속	과천고
지현정	코치	신해숙
백조(쇼트)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프리)	프로그램	셀부르의 우산(쇼트) 블랙 스완(프리)